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2. 23.(금) 총 3매(본문1)	
담당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성호, 팀장 이두희, 사무관 김지우, 주무관 남혜숙 • ☎ (044) 201-4583, 4813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임원 모집기한 연장 - 인프라·금융·법률 등 투자개발사업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3일(화)에 시작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임원 공모의 서류접수 마감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수)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공모기간 중 설 연휴가 겹친 점, 신설 기관으로서 KIND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 아울러, 공모기간 연장과 함께 채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기구나 외국기업 등에 근무하는 글로벌 인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홍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역량 있는 지원자를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kind.trn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등기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추진단
 - ** (온라인 접수) 채용 홈페이지(<http://kind.trns.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4583), 남혜숙 주무관(☎ 044-201-48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추진배경 및 경위

- ◆ 투자개발형(PPP)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
- ⇒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강화

□ (추진 배경)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관 협동(PPP)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03억불 → '15년 1,199억불(약 3배)

○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

*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14억불)이 차지하는 비중: 1.15%('15년)

○ 반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국가대항전)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

* 특히, 프랑스(Egis), 카타르(Nebras Power), 일본(JOIN)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

⇒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

□ (추진 경위) '17.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원기구 설립 의결(1.4)

○ (법적 근거 마련) 「해외건설 촉진법」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

* 개정안 발의(전현희의원, '17.6월) → 상임위 의결('17.9월) → 본회의 의결('17.9월) → 국무회의 및 공포('17.10월) → 개정안 시행('18.4월)

2. 지원공사 주요 역할

- (주요 업무)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전문적으로 지원
 - (사업 발굴*)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제안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수주에 활용
 - * G2G, 자체 발굴,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단기~중장기)
 - (개발 지원) 금융, 법률,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
 - * 지원공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F/S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
 - (금융지원) 대출 주선,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
 -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강을 위한 융자, 지분 투자 등도 실시
 - * 지원공사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채권발행 가능

